

하용조 목사의 짧은 묵상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참된 예배 없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고 우쭐하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 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